내 마음의 연약지반 구역

(아모스 7:1~17)

1.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2.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3.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4.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5.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6.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7.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8.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9.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내 마음의 연약지반 구역”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내 마음의 연약지반 구역’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세정 시인의 시의 제목입니다.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은 연약지반이라는 특이한 지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 지역을 지나가다가 연약지반 구역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읽고 시의 모티프를 삼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 마음의 연약지반 구역’은 나와 너의 관계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누군가를 깊이 관계하게 되면 마음에 연약지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덧붙이자면 이러한 연약지반으로 표현되는 관계성은 사람 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보내어 애착을 느끼

며 관계하는 모든 대상에게 적용됩니다. 어떤 대상에게 마음을 많이 줄수록 그 관계는 하중을 견디기 어려운 연약지반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애착을 느끼면서 밀착되어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어떤 사소한 기운이라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예전에 아이의 부모들이 크게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의 얼굴을 긁어서 울린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기 자녀의 얼굴을 손톱으로 긁은 아이의 집을 찾아가서 따지다가 아이들의 싸움이 어른들의 싸움으로 번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저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애들이 놀다보면 얼굴이 긁힐 수도 있지, 그런 것을 가지고 싸움을 벌이나?"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아 키우다보니 자녀와 관계하는 동안 부모의 마음이 연약지반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소하다면 사소한 사건이지만 연약지반이 되어버린 마음에서는 아이의 얼굴에 난 손톱자국이라는 하중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에 두고 문세정 시인의 시를 한 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서해포구 월곶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처럼
내 마음에도 무르고 약한 땅이 있습니다
심장을 중심으로 반경 5cm지점은 언제나 진흙입자들로 덥혀있어
무게를 버티는 힘이 매우 약하답니다
가끔 생각지도 못한 슬픔이 그 지점을 통과할 때엔 강도 3.0이상의 지진이 일어
정신을 잃을 만큼 전신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한번 내려앉은 지반을 복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답니다
네, 그럼요 한시라도 긴장을 늦출 수 없죠
자칫하면 당신이나 나나 대책 없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당신, 나를 통과하려거든 먼저 호흡을 가다듬고
천천히 마음속도계를 조절해가며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요
물이 흐르는 대로 순순히 몸을 내맡기는 나뭇잎처럼
당신과 나의 숨결이 맞닿아야 해요
그 순간만큼은 지나간다는 생각조차 내려놓은 채
한 호흡으로 지나가야하는 내 마음의 습지,
그대가 무심히 던진 말 한마디에도 쉽게 무너져 내리는"

밀착되어 애착을 느끼는 관계일수록 마음의 연약지반이 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 한 마디가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3.0의 지진은 사실 느끼기 힘든 약한 수준의 지진입니다. 그런데 고작 그 정도의 지진만 일어나도 연약지반은 흔들려 무너질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문세정 시인의 첫 번째 시집의 제목은 “예수를 리메이크하다”입니다. 시집의 제목만으로 이 분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시를 본문의 말씀과 접목시켜 보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의 의미를 상상도 못할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 마음에 있는 연약지반을 정확하게 겨냥하여 들어옵니다. 그 연약지반 구역을 조심스럽게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진을 일으켜서 폭파시키고 제거해버립니다. 조금의 하중도 견디기 어려워하는 마음의 연약지반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연약지반을 형성하는 마음의 관계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문세정 시인이 이러한 복음의 특성을 알고 이 시를 썼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마음에 인공지진을 일으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에게 세 개의 환상을 허락하십니다.
첫 번째는 메뚜기 환상이고 두 번째는 불의 환상이고 세 번째는 다림줄의 환상이 나타납니다. 언제나 느끼는 것이지만 성경은 참 기가 막히는 책입니다. 오늘 이 환상이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도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뚜기 재앙의 환상은 1~3절까지 나타납니다. 1~2절을 보면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고 하였습니다. 왕이 풀을 벤다는 것은 북 왕국 이스라엘의 풍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목초지에 풀이 자라는 계절이 되면 먼저 왕가의 가축들을 위해 풀을 벱니다. 뿌리는 남겨두기에 새로운 움이 돋습니다. 그때 나온 풀들은 일반 백성과 목자들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렇게 한번 풀을 벤 뒤에 백성들의 차례가 올 때쯤에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는 이미 존재하던 메뚜기 떼가 우연히 그 땅을 덮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위해 의도적으로 준비하신 일이 일어날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의 환상을 보게 된 아모스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이 2절 하반부에서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라는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 왕국 이스라엘이 범죄 하였으나 용서받기를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환상으로 보여주신 재앙을 유보시키십니다.
그런데 또 다시 아모스에게 환상이 내려오게 되는데 불의 재앙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4~6절에서 나타납니다. 4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고 하였습니다. 앞서 나타난 메뚜기 재앙이 땅에서 초록을 없앰으로써 농사와 가축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재앙이었다면, 불의 재앙은 바다와 육지를 다 먹어치우는 보다 확대된 규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이 살아가기 위한 삶의 근거지 자체를 초토화 시켜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은 단순히 선민을 죽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선민들이 삶의 근거로 여기는 조건들을 없애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또 다시 중보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재앙에 대해서도 유보하십니다.
재앙으로 심판을 생각하시면서도 아모스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미루시는 모습에서 하나님이 선민에게 갖고 계신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선민들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의로운 속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선민들이 마냥 타락하는 것을 방관하실 수도 없으셨습니다. 그렇기에 다만 심판이 유보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심판이 유보되는 가운데 마지막 다림줄의 환상으로 집중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림줄의 환상이 의미하는 일들이 선민에게서 일어나기를 바라셨고, 또한 그것을 위해 메뚜기 재앙과 불의 재앙을 유보시키셨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러한 재앙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림줄 환상에서 나타나는 의미 안으로 귀속된 것입니다.

이 다림줄 환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흔히 나타나는 오해를 풀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림줄은 건물을 지을 때에 수평과 수직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설치합니다. 줄에 무거운 금속추를 달아서 늘어뜨려 놓으면 줄은 언제나 지표면에 대해 수직을 유지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수직과 수평을 관찰하며 건물을 쌓아올리는 것입니다.
다림줄이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설교나 강해에서는 하나님께서 선민의 마음을 측량하신다는 비유로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측량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메뚜기 재앙이나 불의 재앙이 언급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림줄과 같은 뚜렷한 기준으로 선민들의 마음을 측량하신 결과 이들의 마음이 어긋나 있음을 보셨고 심판을 내리시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 환상에서 등장하는 다림줄을 측량이라는 용도의 기준에서만 이해한다면 아모스 7장 전체의 의미 또한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7절을 보면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에서 이미 다림줄은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잡고 서계신 모습으로 나타난 세 번째 환상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8절을 보면 하나님과 아모스의 대화가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아모스가 다림줄의 용도를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굳이 무엇을 보느냐 묻고 계십니다.
앞서 7절에서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서계셨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지에서 살도록 정해놓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곁에 다림줄의 형상을 보라고 하십니다. 말씀드렸듯이 다림줄은 무거운 추가 달려서 항상 지면에 수직으로 늘

어뜨려져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선민을 복지에 살게 하신 이유를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민들이 다림줄과 같은 모습이 되기를 바라시며, 이들을 출애굽 시키시고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으며 가나안 복지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재앙과 불의 재앙을 통해서 다림줄이 되는 지점으로 선민들을 이끌어 가시려고 하셨습니다. 메뚜기 재앙이나 불의 재앙은 죽음 그 자체는 아닙니다. 선민들이 삶의 근거로 여기는 대상이 없어지는 것뿐이지 선민들 자체를 없애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통해 선민들을 이끌어 가시고자 했던 지점은 바로 선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공중에 매달려 있는 다림줄처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8~9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선민들은 이러한 다림줄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메뚜기 재앙을 통해 알 수 있는 선민들이 무엇을 삶의 근거로 여겼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메뚜기가 피해를 입히는 풀은 가축들의 먹이였고 과일과 곡식은 식량이었습니다. 우리로 치자면 먹고 살기 위해 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대표적인 마음의 연약지반입니다. 사람들은 재산, 직장, 사업 등에 마음의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에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업에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민들의 마음에 이러한 연약지반 구역이 생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을 통해 삶에 지진을 일으키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다만 아모스의 중보기도를 통해 이 재앙은 유보됩니다. 환경적으로 메뚜기 재앙이 닥치기 전에 아모스는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선민들의 마음에서부터 인공지진이 일어나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불의 재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모스의 말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선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불의 재앙을 통해 삶의 근거를 완전히 제거하시려고 합니다. 그러자 아모스는 다시 한 번 선민들의 마음의 연약지반 구역에 인공지진을 일으켜보고자 간구합니다. 이 땅의 대상들을 근거로 삼은 선민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다림줄의 추처럼 하늘에 매달린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파해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선민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림줄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아모스에게 다림줄을 제시하시며 그렇게 마음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사는 사람이 없음을 드러내시며 이제는 돌이키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환상들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지진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향해 점점 더 강하게 묶여갑니다.
아모스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고 있었기에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근거를 치시기 전에 스스로 마음의 연약지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재앙을 맞이할 이유도 없습니다. 땅에 삶의 근거를 두고 일희일비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아모스

는 선민들의 마음에서 지진이 일어나도록 권면해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선민들은 아모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때에 벧엘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북 왕국 이스라엘의 종교 활동을 관장하던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 선지자를 왕에 대한 반역죄와 국가에 대한 모반죄로 고소합니다.
제사장 아마샤는 대체 어떤 위협을 느꼈기에 아모스를 배척했던 것일까요? 북 왕국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왕권을 등에 업고 우상숭배를 통해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였으나 벧엘이나 길갈이나 브엘세바에서 산당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산당예배는 입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왕에게서 권위를 인정받았으며 물질적인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자신들의 판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이 죽을 것이고 여로보암이 속한 예후 왕조가 멸절당할 것이며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는 없어질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복음은 마음의 연약지반에 대해 지진을 일으킵니다. 참 선지자나 참 목사님들의 설교는 인공지진을 유발시키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는데도 마음에서 인공지진이 없다면 그 말씀이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 마음을 붙이고 관계하는 동안 그 부분은 연약지반이 됩니다. 이 연약지반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매달린 다림줄이 되지 못하고 땅을 기어 다니는 뱀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매여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서는 인공지진이 일어나고 연약지반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날마다 마음의 연약지반에 지진을 일으켜야만 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달라붙으려고 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서 하늘에 올라가게 됩니다. 주님을 꼭 붙잡고 주님께 매여 있으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에 내 몸은 이 땅에 드리워진 다림줄의 추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림줄을 통해서 하늘의 기운이 내려와서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이 다림줄의 모습이야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민으로 택하신 목적입니다. 모두가 다 다림줄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를 가나 다림줄이 되어야 합니다. 뱀이 배를 땅에 대고 살아가듯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땅에 애착을 가지고 마음의 이곳저곳을 연약지반 구역으로 만들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뱀의 자식들과 같은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선민은 다림줄로 살아가야 합니다. 땅에 마음을 붙이지 않고 십자가를 통해 마음의 모든 연약지반에 지진을 일으키며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몸은 다림줄의 추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다림줄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써 내 마음 속에 끊임없이 인공지진을 일으키는 지진대 위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에 매달린 다림줄이 됨으로써 이 지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림 없는 복지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